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47>

JCCT 2024-5-8

##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정영미\*

Jeong Yeong M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 아동의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2018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존감은 아동의 그릿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애착 하위 변인 중에서는 또래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에서는 '모' 애정/관여, '부' 민주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아동의 자존감, 학교 차원에서 또래 신뢰, 가정적 차원에서 모 애정과 부 민주적 관계가 아동의 그릿을 강화하는 유용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그릿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 차원에서 개입과 지원으로 증진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아동, 자존감, 또래 애착, 양육태도, 그릿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grit, and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were ident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the 11th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2018) data, and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child's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ild's grit, and among the peer attachment sub-variables, peer trust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and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ing attitude, 'mother' affection/involvement, 'father' Democratic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children's self-esteem at the personal level, peer trust at the school level, and maternal affection and paternal relationship at the family level are useful variables that strengthen children's grit.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grit level, we must consider promotion measures through intervention and support at a multifaceted level.

**Key words** : Child, Self-esteem, Peer Attachment, Parenting Attitudes, Grit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사회복지보육학부 초빙교수  
접수일: 2024년 3월 10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10, 2024 / Revised: April 5,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and Childcare Gyeongnam Geochang Univ, Korea

## I. 서론

아동 발달은 누적적이고, 발달단계 범주에 따라 체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초기 발달단계의 결핍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 문제행동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1]. 특히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후기 아동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과도기이자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초석이 다져지는 때이다. 이에 이 시기의 아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인 힘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2, 3]. 최근 이러한 삶의 성공 예측 요인으로 그릿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인내심으로 지속적인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태도를 뜻한다[4]. 기존 아동의 그릿에 대한 연구가 학업스트레스, 학업 성취, 학교적응, 사회성 등 성취나 개인의 수행에만 집중되어 온 반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학교, 가정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미비하다[5-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가치와 능력에 대한 태도로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10]. 자존감은 내외적 동기를 촉진시키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로 아동의 심리적 자본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릿과의 연구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11, 12].

한편 아동의 그릿과 같은 개인변인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후기 아동기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반항심과 독립성이 강해지고 동성친구가 일상적 삶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또래와의 애착은 부모의 지지와는 다른 애착으로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또래를 부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13]. 이에 후기 아동기들의 또래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래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자 친구 간의 신뢰,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또래 애착관계의 질이 아동의 그릿을 증가시키는 학교 환경에서의 의

미 있는 변인이라 볼 수 있다[14].

또한, 최근 그릿의 특성 중 기질보다 환경에 의한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그 환경요인에서는 아동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하고 있다[15, 16]. 실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촉진하는 중요 매개 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17-19].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한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17, 20]. 이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를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발현과 발달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학교, 가정에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개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그릿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150 가구 중 아동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 모두 응답한 117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아동 중 남학생은 604명(52%), 여학생은 569명(48%)이었고, 아동의 평균 월령은 123.95개월이었다.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모 40.92세, 부 43.34세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604(52%)

	여	569(48%)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123.95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40.92세
	아버지 평균 연령	43.34세

## 2. 측정도구

### 1)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830으로 나타났다.

### 2)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 3개의 하위영역에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애착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외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신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척도로 Cronbach  $\alpha$ 는 .823으로 나타났다.

### 3) 부모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세 차원(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권위적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애정/관여, 이성/유도, 민주적 관계, 친절/편안함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로 Cronbach  $\alpha$ 는 모 양육태도 .903, 부 양육태도 .916으로 나타났다.

### 4) 그릿

아동의 그릿은 총 8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60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간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독립변인(자아존중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자존감 평균은 3.499( $SD=.461$ ), 또래 애착에서 의사소통은 3.122( $SD=.556$ ), 신뢰 3.227( $SD=.603$ )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에서 ‘부’ 애정/관여 3.735( $SD=.500$ ), ‘부’ 이성/유도 3.574( $SD=.485$ ), ‘부’ 민주적 관계 3.623( $SD=.517$ ), ‘부’ 친절/편안함 3.730( $SD=.577$ ), ‘모’ 애정/관여 4.054( $SD=.441$ ), ‘모’ 이성/유도 3.706( $SD=.411$ ), ‘모’ 민주적 관계 3.691( $SD=.469$ ), ‘모’ 친절/편안함 3.746( $SD=.525$ )로 나타났고, 그릿의 평균은 3.419( $SD=.537$ )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자아 존중감	3.499	.461	-1.343	2.700		
또래 애착	의사소통	3.122	.556	-.217	-.029	
	신뢰	3.227	.603	-.539	-.056	
부모 양육태도	부	애정/관여	3.735	.500	-.128	.131
		이성/유도	3.574	.485	-.159	.630
		민주적관계	3.623	.517	.045	.128
		친절/편안함	3.730	.577	-.143	-.094
	모	애정/관여	4.054	.441	-.192	-.047
		이성/유도	3.706	.411	-.007	.416
		민주적관계	3.691	.469	.106	.252
		친절/편안함	3.746	.525	-.042	-.097
그릿	3.419	.537	.240	.064		

###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3과 같다. 자존감과 그릿 간의 상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 $p<.001$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그릿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또래 신뢰 .368( $p<.01$ )가 또래 의사소통 .323( $p<.01$ )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그릿 간의 상관은 ‘모’ 애정/관여가 .183( $p<.01$ )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이성/유도 .100( $p<.01$ )이 가장 낮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6*	1										
3	.43*	.33*	1									
4	.44*	.38*	.76*	1								
5	.16*	.18*	.06*	.06*	1							
6	.08*	.14*	.09*	.09*	.57*	1						
7	.09*	.10*	.15*	.12*	.63*	.58*	1					
8	.08*	.13*	.13*	.14*	.77*	.45*	.64*	1				
9	.04*	.13*	.13*	.12*	.21*	.16*	.22*	.18*	1			
10	.05*	.10*	.04*	.03*	.19*	.23*	.10*	.12*	.07*	1		
11	.06*	.13*	.13*	.03*	.22*	.18*	.24*	.27*	.01*	.58*	1	
12	.07*	.10*	.14*	.15*	.22*	.17*	.22*	.19*	.76*	.59*	.67*	1

(1:자존감, 2:그릿, 3:또래의사소통, 4:또래신뢰, 5:모애정, 6:모이성, 7:모민주, 8:모친절, 9:부애정, 10:부이성, 11:부민주, 12:부친절)

3. 아동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2.0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80-0.9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6-1.2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유의미하였다. 하위변인을 설명력의 크기순으로 제시하면 ‘부’ 민주적 관계( $\beta = .069, R^2 = .271, p < .01$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 애정/관여( $\beta = .110, R^2 = .266, p < .001$ ), 또래 신뢰( $\beta = .193, R^2 = .251, p < .001$ ), 자존감( $\beta = .367, R^2 = .217, p < .001$ )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독립변인 (하위변인)	B	$\beta$	T	$R^2$	F	
상수	.570		3.407***		108.465***	
자존감	.427	.367	13.180***	.217		
또래 애착	또래 신뢰	.172	.193	6.935***		.251
부모 양육태도	모 애정/관여	.134	.110	4.248***		.266
	부 민주적관계	.072	.069	2.681**		.271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 아동 그릿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이 아동의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 아동 그릿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 이성/유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 긍정적 영향력이 그릿의 향상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22, 23],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릿을 향상시킨다는 연구[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목표에 대한 열정과 지속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자존감, 또래 신뢰, 모 애정/관여, 부 민주적 관계가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릿이 높고 [2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7]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의 민주적 관계가 아동 그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긍정적인 삶의 힘인 그릿을 키우게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또래 애착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또래 관계가 아동의 그릿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후기 아동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맞는 부모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 애착에서 신뢰가 중요하므로 또래와의 관계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 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림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부와 모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아동의 그림 발달을 위해서는 부와 모의 역할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데 실증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또한,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들의 구체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그림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그림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존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흥미와 끈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 내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부모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변인의 원 검사 문항보다 적게 선별적으로 사용되어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그림의 요인 구조 탐색 결과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림을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년이라는 단일 학년만 분석하여 그림의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해 차후에는 전국 수준의 데이터를 통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Deighton, J., Humphrey, N., Belsky, J., Boehnke, J., Vostanis, P., and Patalay, P.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mental health difficulties and academic performance during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6. No. 1, pp. 110-126. 2018.
- [2] S. Y. Chun. "The Influence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on Grit of child in Late Childhood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For Children*, Vol. 16, No. 4, pp. 17-32, 2021. [DOI: <http://dx.doi.org/10.23931/kacp.2021.16.4.17>]
- [3] Y. M. Jeing.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s' Happiness on Children's Autonom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 95-100, 2022.
- [4]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and Kelly, D. 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5] H. M. Kim and M. H. Hwang.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Vol. 35, No. 3, pp. 63-74. 2015. DOI : 10.25020/je.2015.35.3.63
- [6] T. S. Eum and M. S. Yoon.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 Grit, and Academic Helplessn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 pp. 1151-1176. 2020. DOI : 10.22251/jlcci.2020.20.2.1151
- [7] S. H. Cho. "Grit's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xhaus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Vol. 57, pp. 146-169. 2018. <http://dx.doi.org/10.17854/ffyc.2019.01.57.145>
- [8] Oriol, X., Miranda, R., Oyanedel, J. C., and Torres, J. "The role of self-control and grit in domains of school success in student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Frontiers in psychology*, Vol. 8, pp. 1716. 2017.
- [9] H. J. Lim and S. R. Le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Grit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Differences in School-level,"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70, No. 2, pp. 133-164. 2022.
- [10] Harter, S. "Children's understanding of multiple emotions: 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pp. 147-194.
- [11] S. Y. Han and Y. H. Park. "Exploring Home

- and School Contextual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Grit and its Chang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6, No. 4, pp. 175-201. 2022. DOI : 10.18230/tjye.2018.26.4.175
- [12] Wolters, C. A., and Hussain, M.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Vol. 10, pp. 293-311. 2015.
- [13] Freeman, H., and Brown, B. B.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 No. 6, pp. 653-674. 2001.
- [14] Armsden, G. C., & Greenberg, M. 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pp. 427-454. 1987.
- [15] S. H. Lee and J. E. Choi.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GRIT, Growth Mindse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 37, No. 3, pp. 155-168. 2019. DOI : 10.7466/JKHMA.2019.37.3.155
- [16] H. S. Ryu and J. Y. Kim.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Grit on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3, No. 2, pp. 261-269. 2019. DOI : 10.21184/jkeia.2019.2.13.2.261
- [17] B. E. Kang. "The Mediating Impact of Parenting Styl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Gri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3, No. 1, pp.109-139. 2022.
- [18] K. B. Yun. "The Effect of Mothers' Grit on Adolescents' Gri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itudes by Parent-Adolescent Conversation Tim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8, No. 2, pp.15-28. 2020. DOI : 10.7466/JKHMA.2020.38.2.15
- [19] Y. J. Hwang and C. G. Kim. "The Effects of Parents' Grit on Children's Grit -Doubl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Coercion,"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7, No. 4, pp. 27-47. 2020. DOI : 10.34244/JFOYS.2020.17.4.27
- [20] H. K. Chae. "Relationship with Mother's Achievement Pressure, Parenting Behavior, Child's Gri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6, pp. 2937-2948. 2021.
- [21] H. W. Chung, Y. R. Kim and S. Y. Park. "Exploring Variables on Gri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pplication of Penalized Regress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8, pp. 673-693. 2020. DOI : 10.22251/jlcci.2020.20.8.673
- [22] H. J. Lim. M. H. Hwang and H. C. Choi. "A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Grit and Learning Tim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22, No. 3, pp. 537-566. 2021.
- [23] Lan, X., and Radin, R. "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grit on mitigating problem behaviors among urban left-behi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29, pp. 250-260. 2020.
- [24] Y. J. Won. H. J. Choi and H. K. Kim. "A Study of the Influential Factors of Grit of Children in Poor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No. 53, pp. 107-128. 2021. DOI : 10.20993/jSSW.53.5